



世宗實錄

세종실록

학술 토론회

2022년 5월 30일(월) 14:00

용인시청 컨벤션홀



좌장 한동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기조발제 박재성(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 세종대왕과 용인 도전

발제자 홍순석(강남대학교 한영문화콘텐츠학과 명예교수)
• 용인지역문화와 콘텐츠 : 한글문화유산과 용인

강진갑(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 전 경기대학교 교수)
• 훈민정음 문화콘텐츠 제작 연구
- 영화 '나랏말싸미' 사례를 중심으로 -

강구인(전 용인시 공무원, 훈민정음 교육원장)
• 훈민정음과 음양오행

김장환(용인문화원 사무국장,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 문화도시 용인의 정체성, '길'에서 찾다

토론자 박남숙(용인시의회 4선의원,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여성정책위원장)

하연자(용인시의회 의원,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

이금로(시민방송용인 기자,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선승주(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

주관: **현민정음기념사업회**

후원: 용인문화원, 경인신문, 4차산업행정뉴스, 시민방송용인

세종실록 학술토론회

- ⊕ 일시 : 2022년 5월 30일(월) 14:00~16:00
- ⊕ 장소 : 용인시청 컨벤션홀(3층)
- ⊕ 주관 :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 ⊕ 후원 : 용인문화원 · 경인신문 · 4차산업행정뉴스 · 시민방송용인
- ⊕ 토론회 진행 순서

내용	담당자	시간		비고
개회선언	한동현(한국외국어대 교수)	14:00 ~ 14:04	4'	좌장
국민의례	다 함께	14:05 ~ 14:10	6'	
개 회 사	박재성(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14:11 ~ 14:20	10'	
좌 장	한동현(한국외국어대 교수)	14:21 ~ 16:00	100'	전체진행
기조발제	세종대왕과 용인 도천 박재성(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14:21 ~ 14:35	15'	
발 표 1	용인지역 문화와 콘텐츠 홍순석(강남대학교 명예교수)	14:36 ~ 14:50	15'	
발 표 2	훈민정음 문화콘텐츠 제작 연구 강진갑(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	14:51 ~ 15:05	15'	
발 표 3	훈민정음과 음양오행 강구인(훈민정음교육원장)	15:06 ~ 15:20	15'	
발 표 4	문화도시 용인의 정체성, '길'에서~ 김장환(용인문화원 사무국장)	15:21 ~ 15:35	15'	
종합토론	박남숙(용인시의회 의원) 하연자(용인시의회 의원) 이금로(시민방송용인 기자) 선승주(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	15:36 ~ 15:55	20'	
폐 회	기념촬영	15:56 ~ 16:00	5'	

세종실록 학술토론회

목 차

- ◆ 기조발표 : 세종대왕과 용인 도천
박재성(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09
- ◆ 발 표 1 : 용인지역 문화와 콘텐츠 : 한글 문화유산과 용인
홍순석(강남대학교 한영문화콘텐츠학과 명예교수) 21
- ◆ 발 표 2 : 훈민정음 문화콘텐츠 제작 연구
- 영화 ‘나랏말싸미’ 사례를 중심으로 -
강진갑(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 33
- ◆ 발 표 3 : 훈민정음과 음양오행
강구인(훈민정음교육원장) 47
- ◆ 발 표 4 : 문화도시 용인의 정체성, ‘길’에서 찾다.
김장환(용인문화원 사무국장,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59
- ◆ 특별수록 :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 원고
박남숙(용인시의회 의원) 71
- ◆ 발표자소개 74

[기조발표]

세종대왕과 용인 도천

박재성

교육학박사/명예호학박사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一. 시작하며

세종대왕은 여론 조사기관인 한국 갤럽¹⁾이 2004년부터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한 인물을 묻는 여론조사를 5년 주기로 해오고 있는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의 1위는 이순신 장군이고 세종대왕은 2014년 4위에서 2019년 2위로 올라선다. 이처럼 5000년의 역사에서 수많은 왕이 명멸해 갔지만, 그 무엇이 세종대왕을 아직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상위권에 기억되고 있는가?

세종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1397(태조 6)에 출생하여 1450(세종 32)에 54세의 나이로 승하한 조선 제4대 왕으로 성은 전주 이씨이고 이름은 도(禔), 자는 원정(元正)이며 존시는 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 시호는 장헌(莊憲), 묘호는 세종(世宗)이고 능호는 영릉이다. 태종의 셋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로, 비(妃)는 소헌왕후(昭憲王后)²⁾ 심씨이다.

태종 8년(1408) 충녕군에 봉해지고, 태종 12년(1412) 충녕대군에 진봉, 태종 18년(1418) 음력 6월 말형 양녕대군 제(提)가 폐세자됨에 따라 왕세자로 책봉되었다가 같은 해 음력 8월 22세의 나이로 태종의 양위를 받아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하여 조선 초기 국가의 기틀이 되는 전반적인 제도를 갖추었고, 조선왕조가 지배 기반으로 삼은 유교 문화를 융성하게 했다. 특히 백성들이 쉽게 쓰고 읽을 수 있도록 창제한 문자 훈민정음은 세종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업적이고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유산이라는 사실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고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史實)일 것이다.

1) www.gallup.co.kr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 조선 세종의 왕비로 본관은 청송(靑松). 문하시중 심덕부(沈德符)의 손녀이고, 영의정 심온(沈溫)의 딸이며, 어머니는 영돈령부사 안천보(安天保)의 딸이다. 1408년(태종 8) 충녕군과 가례를 올려 빈(嬪)이 되고, 경숙옹주(敬淑翁主)에 봉해졌다. 1417년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에 개봉(改封)되고, 이듬해 4월 충녕대군이 왕세자에 책봉되자 경빈(敬嬪)에 봉해졌으며, 같은 해 9월에 내선(內禪)을 받아 즉위하니 12월에 왕후로 봉하여 공비(恭妃)라 일컬었다.

그러나 1432년(세종 14)에 중국에 미칭을 올리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라 하여 1432년에 왕비로 개봉되었다. 심온은 세종이 즉위한 뒤 영의정에 올라 사은사로 명나라에서 귀환하던 중 아우 심청(沈淸)이 군국대사를 상왕(上王: 태종)이 처리한다고 불평한 일로 대역의 옥사가 일어나 그 수괴로 지목되어 수원으로 폄출되어 사사되었다.

이 일로 폐비의 논의가 있었으나, 내조의 공이 인정되어 일축되었다. 1446년에 52세로 죽자 헌릉에 장사지냈다. 뒤에 세종의 능인 영릉(英陵)으로 이장하였다. 『영릉지』를 예조판서 정인지가 제술하였다. 시호는 선인제성소헌왕후(宣仁齊聖昭憲王后)이고, 능호는 영릉으로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에 있다.

이처럼 조선 시대 문화의 융성에 이바지하고 과학기술을 크게 발전시키는 한편,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토를 넓혀서 조선 초기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용인에 거동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임금이 나들이’ 《조선어사전》(1938)을 뜻하는 ‘거동’은 한자어 ‘거동(學動)’이다. 이 말은 ‘동가(動駕)’와 ‘행동거지(行動舉止)’의 두 가지 의미로 풀이되는데, 첫 번째 의미인 ‘動駕’의 의미는 ‘임금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감’의 뜻으로 현대 국어에 서는 ‘거동’으로 남아 있고 두 번째 의미인 ‘행동거지’라는 뜻은 ‘거동’으로 남아 있다. 즉, 중세 국어 시기에는 ‘거동’이 ‘행동거지’의 의미로만 나타나다가 근대 국어 시기에 ‘임금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감’의 뜻을 갖게 되면서 한자어로서의 본래 음인 ‘거동’과 함께 쓰이고 있다.

이 ‘거동’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민심을 파악하고 지방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임금이 행차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 시대 세종의 용인 행차는 민심을 파악하고자 하는 차원을 넘어 용인현 도천의 냇가에 머무르면서 초저녁 때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풍악을 연주하게 했는데, 아마도 함께 간 소헌왕후를 위해 음악 선물을 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세종이 용인현 도천에 이르렀다는 세종실록을 토대로 용인현 도천 행차 목적, 행차 규모, 호종 인원과 됄됨이를 살펴보고, 용인 행차에 미친 영향, 어가 행차 등의 다각적인 측면의 연구는 지면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二. 세종의 용인 행차 의의

1. 용인 거동에 관한 세종실록

《세종실록³⁾ 99권》 세종 25(1443년) 3월 1일 병진년 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

3) 세종의 재위 기간인 1418년(세종 즉위) 8월부터 1450년(세종 32) 2월까지 세종의 재위 31년 7개월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 163권 154책으로 된 활자본으로, 본래 이름은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이다. 조선 시대 다른 왕의 실록과 함께 일괄해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이 책의 편찬 작업은 『고려사』(1451년)와 『고려사절요』(1452년)가 완성된 뒤 곧이

되어 있다.

上與王妃幸忠淸道溫陽郡溫井王世子從之大君諸君及議政府六曹臺諫各一員扈駕以廣平大君璵壽春君玠守宮自後大君諸君輪次往來是日次龍仁縣刀川邊伶人十五人奏樂自昏至二鼓是行道經守令皆於境上迎謁凡民觀瞻者填溢街路。

임금이 왕비와 더불어 충청도 온양군 온천에 거둥하며, 왕세자가 따르고 대군 및 여러 군(君)과 의정부·육조·대간의 각 한 사람씩을 호가⁴⁾하게 하고, 광평대군 이여⁵⁾와 수춘군 이현⁶⁾으로써 궁을 지키게 한 후, 대군과 여러 군을 윤번으로 왕래하게 하였다. 이날에 용인현(龍仁縣) 도천(刀川)의 냇가에 머무르는데, 영인⁷⁾ 15인이 저녁때

어 시작되었다. 1452년(문종 2) 2월 22일에 왕명을 받아 황보 인·김종서·정인지 등이 총재관으로서 감수의 일을 맡았다. 그리고 허후·김조·박중림·이계전·정창손·신석조 등이 6방(房)을 담당하고, 재워 기간을 여섯으로 나누어 수찬하여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다.

『세종실록』의 수찬은 단종 원년 정월에 거의 마무리되었고, 그 뒤에도 감수 작업은 지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신(史臣)인 이호문이 쓴 황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직서(直書) 여부로 찬수관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다. 또한 사초(史草)의 누설, 황보 인·김종서 등이 제기한 최윤덕의 졸기(卒記)에 대한 논의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1454년(단종 2) 3월 30일, 단종에게 『세종실록』이 올려져 2년 1개월 여에 달하는 편찬 작업이 완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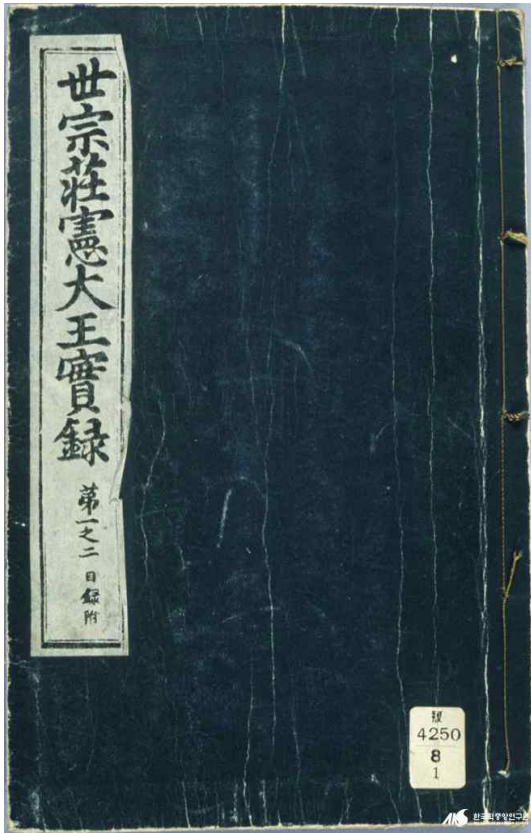
『세종실록』은 분량이 매우 방대해 처음에는 한 별만 베껴 춘추관에 두었다. 그러다가 1466년(세조 12) 11월 17일 양성지의 건의로 『세종실록』에 이어 편찬된 『문종실록』과 함께 주자로 인출을 시작해 1472년(성종 3) 7월에 완료되었다. 이로써 『세종실록』이 최초로 간행되었으며, 이때에 3부를 찍어냈다. 출판된 실록은 충주·전주·성주의 3사고에 1부씩이 보관되었고, 초본은 춘추관에 보관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본을 제외한 실록이 모두 소실되었다.

이에 1603년(선조 36) 7월부터 1606년(선조 39) 3월까지 전주 사고본에 의해 『태종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3부를 다시 간행하였다. 이때 최종 교정본을 포함, 전주 사고본과 함께 총 5부를 춘추관·강화도·마니산·태백산·오대산·묘향산에 보관하였다. 그 뒤 이괄의 난·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춘추관 실록이 소실되고 일부 실록이 파괴되었으나 다시 복구되어 인조 대 이후 실록은 정족산·태백산·적상산·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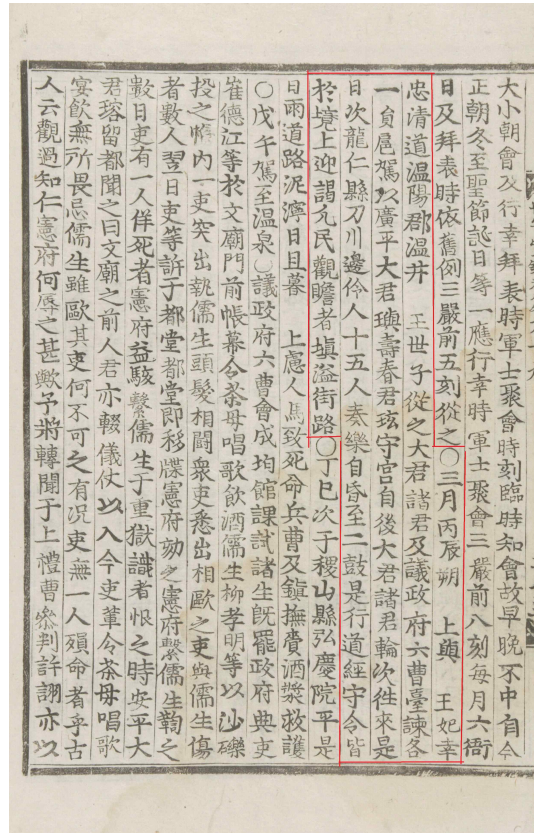
『세종실록』은 권1부터 권127까지는 편년체로 되어 있으며, 권128~135까지는 지(志)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체재를 갖추게 된 이유는 세종의 재위 기간이 길어 사료의 양이 방대했다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시기에 정리된 문화 사업의 양과 질이 다양하고 폭이 넓어 편년체로는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 4) 扈駕 : 임금의 거가(車駕)를 호위하며 좃음. 扈(뒤따를 호) 시중하기 위해 뒤따른다. / 駕(명에 가) 임금이 타는 수레. / 車駕 : 임금의 수레. 혹은 임금의 행차를 말함.
- 5) 광평대군 이여(廣平大君 李璵) 1425년(세종 7) ~ 1444년(세종 26) 조선전기 제4대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왕자. 자는 환지(煥之), 1432년(세종 14) 광평대군으로 봉해지고 1436년에 신자수(申自守)의 딸과 혼인하였다. 1437년 이방번에게 입양하여 후사(後嗣)가 되었다. 성품이 너그럽고 용모와 자태가 풍미하고 총명, 효제하며 서예와 격구에도 능하였다. 20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시호는 장의(章懿)이다.
- 6) 수춘군 이현(壽春君 李玠) 1431년(세종 13)~1455년(단종 3). 세종의 6남(전체 형제중 13남)으로 모친은 혜빈양씨(惠嬪楊氏)이다. 1437년(세종 19) 12월 8일 수춘군으로 봉해졌다. 25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수춘군 사후에 그의 부인 영천군부인(榮川君夫人) 영일 정씨(迎日鄭氏)는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어 정업원이라는 승방을 차린 후 남편의 명복을 빌며 여생을 지냈다.
- 7) 영인(伶人) : 조선시대 음악의 연주 및 교습에 관련된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음악을 전업으로 삼던 음악인. 일명 악공(樂工) 또는 공인(工人)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昏]8)부터 이고(二鼓9))에 이르도록 풍악을 연주하다. 이번 거동에 길치의 수령들은 모두 고을 경계에서 영알(迎謁)10)하였으며, 구경하는 백성들이 거리에 넘치었다.



▲ 세종실록 표지



▲ 세종 25(1443년) 3월 1일 병진년 기록

2. 세종의 거동 규모

위 세종실록의 기록에 나타난 세종의 거동을 호가한 규모는 ‘왕세자가 따르고, 대군 및 여러 군과 의정부육조대간의 각 한사람씩[王世子從之大君諸君及議政府六曹臺諫各一員]’이다.

즉, 대군¹¹⁾은 조선시대 왕자 중 정비의 몸에서 출생한 적실양자를 지칭하는데, 적

8) 혼(昏) : 일입후이각반위혼(日入後二刻半爲昏 해가 진 후 2刻 半을昏으로 삼는다.)이라 했듯이 ‘날이 저물다’는 뜻이다. 한 시간을 넷으로 나눈 둘째의 시각. 30분을 이른다. 즉 15분. 一刻은 한시간의 4분의 1. 곧 15분을 이른다. 3월 1일 기준 오후 6시 15분 전후. 곧 6시 반을 의미.

9) 이고(二鼓) : 밤 9~11시. 밤의 시간을 다섯으로 나눈 두 번째 시간. 이때에 두 번째 북을 울려서 알렸음. 계절에 따라 밤의 길이가 다르므로 이 시각에도 변동이 있으나, 대략 오후 10시를 전후한 시간을 말함. 오경(五更)의 이경(二更), 오야(五夜)의 을야(乙夜)와 같음.

10) 출영(出迎)하여 배알(拜謁)하는 것을 이룸.

장자(嫡長子)인 왕세자를 제외하고 이르는 말이다. 세종의 경우 정비인 소헌왕후와의 사이에 8남2녀¹²⁾를 두었다. 이들 여덟명의 적자 가운데 훗날 문종이 되는 적장자인 왕세자는 별도로 앞에 기록하였으며, 그 밖의 아들들인 7명의 대군과 제군(諸君)이라 하였다. ‘군(君)’은 왕과 후궁 사이의 아들에게 준 작위인데, 본 기사에서 ‘제군’이라 함은 10명의 후궁에게서 태어난 10명의 서자¹³⁾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대군 중 광평대군과 제군 중 수춘군은 궁을 지키게 하였으니, 호가한 왕자는 모두 왕세자 포함하여 16명이나 된다.

그리고 의정부와 육조와 대간 각 1원(員)이라 하였으니,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총 3인이 되고, 육조는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 각 1원으로 총 6인이 되며, 대간은 감찰 임무를 맡은 대관¹⁴⁾과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 임무를 맡은 간관¹⁵⁾의 합칭으로 이 또한 각 1원이니 총 2인이 된다. 이로써 세종의 거동을 호가한 주요 인물은 총 27명이나 되니 어가행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였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욱이 영인 15인이 저녁때부터 이고에 이르도록 풍악을 연주하였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술했던 것으로 보아 특별한 거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누구를 위하여 풍악을 울리게 하였나

위 세종실록에는 눈길을 끄는 기록이 보인다. 바로 ‘영인 15인이 저녁때[昏]부터 이고(二鼓)에 이르도록 풍악을 연주하였다[伶人十五人奏樂自昏至二鼓].’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장장 4시간이나 연주회를 개최했다는 것인데, 누구를 위하여 연주했는지는 기록이 없다. 그래서 추론을 해본다면 거동에 동행한 사랑하는 아내 소헌왕후를 위해서 풍악을 연주하게 하였을 것이다.

-
- 11) 종친부에 속하였으나 관품(官品)을 가지지 않았으며, 벼슬을 했을 때에는 영종정경(領宗正卿)이라 하였다. 대군은 원칙적으로 벼슬을 하지 않았다.
 - 12) 장녀 정소공주, 적장자로 왕세자(璠 옥 이름 향 1414~1452), 차녀 정의공주, 차남 수양대군(璠 옥 이름 유 1417~1468), 3남 안평대군(璠 패옥 소리 용 1418~1453), 4남 임영대군(璠 아름다운 옥 구 1419~1469), 5남 광평대군(璠 옥 여 1425~1444), 7남 금성대군(璠 아름다운 옥 유 1426~1457), 9남 평원대군(璠 아름다운 옥 립 1427~1445), 15남 영웅대군(璠 옥 갈 염 1434~1467)
 - 13) 영빈 강씨 : 6남 화의군(璠 구슬 목걸이 영 1425~1460), 혜빈 양씨 : 11남 한남군(璠 옥이름 어 1429~1459), 13남 수춘군(璠 옥돌 현 1431~1457), 16남 영풍군(璠 옥 이름 전 1434~1456), 신빈 김씨 : 8남 계양군(璠 옥모양 중 1427~1464), 10남 의창군(璠 옥 이름 강 1428~1460), 12남 밀성군(璠 보배 집 1430~1479), 14남 익현군(璠 금옥 광발 곤 1431~1463), 17남 영해군(璠 옥 이름 당 1435~1477), 18남 담양군(璠 옥고리 거 1439~1450)
 - 14) 臺官 : 대신(臺臣)·헌관(憲官)이라고도 한다. 사헌부는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을 풀어 주며, 남위(濫僞)를 금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곳이었다.
 - 15) 諫官 : 왕에 대한 간쟁(諫諍)·봉박(封駁)을 담당한 관원을 일컫는 말. 1401년(태종 1)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설치하면서 간관은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하여 국왕의 직속기관이 되었다.

왜냐하면, 소헌왕후의 친정 아버지인 심온(沈溫)이 1418년에 사은사(謝恩使)로서 명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동생 심정(沈正)이 병조판서 박습(朴習)과 함께 상왕인 태종의 병권 장악을 비난한 것이 화근이 되어, 이듬해 귀국 도중에 의주에서 체포되어 수원으로 압송, 사사되었다.¹⁶⁾ 이 때 세종은 장인이기도 한 심온의 사건을 막아내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기면서 소헌왕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을 갖고 있던 중 대소신료들이 죄인의 여식이 왕비가 될 수 없다면서 폐위해야 한다고 연일 상소를 올려 왕후의 지위가 위태로울 때 비(妃)로서의 내조의 공이 크고, 많은 자녀를 낳아 왕실의 안정에 공인 있다면서 신하들의 집요한 주청을 묵살하며 지켜주었다는 점과, 1426년 세종은 직첩이 복원된 어머니 안씨와 소헌왕후를 배려하여 소헌왕후가 어머니 안씨와 만나 연회를 베풀 수 있도록 하였다는 기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세종이 용인현 도천의 냇가에서 영인 15인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왕비인 소헌왕후를 위해서 풍악을 올리게 하였을 것이다.

三. 용인현 도천의 냇가

그렇다면 위 세종실록에 기록된 ‘이날에 용인현 도천의 냇가에 머물렀다[是日次龍仁縣刀川邊]’는 장소는 어느 곳을 이르는 것일까?

먼저 ‘도천’이라는 지명을 찾아나서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임금과 왕비, 왕세자와 7명의 대군 및 9명의 제군, 그리고 의정부와 육조 및 대간 각 한 사람씩을 합친 27명과 이들을 별도로 호종하는 시위대 등을 감안한다면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행이 머무를 수 있는 넓은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거동에 길치의 수령들은 모두 고을 경계에 마중 나가서 배알하였으며, 구경하는 백성들이 거리에 넘치었다[是行道經守令皆於境上迎謁凡民觀瞻者填溢街路].’는 기록을 토대로, ‘구경하는 백성들이 거리에 넘치었다’는 것은 도천의 냇가가 도심과 아주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이 아니라, 백성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거리가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1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또하나 《세종실록》의 이 기사는 세종 25(1443년) 3월 1일 병진년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세종이 『훈민정음¹⁷⁾』을 창제한 1443년 12월 30일보다 9개월 전의 기록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도천(刀川)’이라는 한자어 지명에 보이는 ‘刀(칼 도)’의 훈과 음이 『훈민정음 해례본¹⁸⁾』에는 ‘刀(갈 도)’로 표기되었다는 점이다.

17) '훈민정음'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말이다. 아울러 1446년(조선 세종 28)에 1446)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에 찍어 낸 판각 원본을 가리키는 책이름이기도 하다.

① 문자로서의 '훈민정음' : 세종은 일반 민중이 글자 없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음을 마음 아프게 여겼다. 1443년(세종 25) 음력 12월 세종은 '훈민정음'이라는 새 글자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독창적인 글자를 만든 일은 세계 역사에 일찍이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의 고유 문자로서의 한글을 일컫는 이름은 여러 가지이다. 세종이 한글을 만들 당시에는 '훈민정음'이라 불렀는데, 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이 때의 소리는 글자와 통한다. '훈민정음'을 줄여 '정음'이라고도 하였는데, 이 이름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끝에 있는 정인지의 글에 이미 나타나 있다. '언문(諺文)'이라는 이름은 최근까지 쓰였는데, 이것은 그 유래가 오래된 말이다. 원래 '언'이란 '우리말' 또는 '정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문(文)과 언(諺)을 섞어 쓸 때는……" 또는 "첫소리(초성)의 ㅇ과 ㅇ은 서로 비슷하여 언에서는 가히 통용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반헛소리 르은 마땅히 언에 쓸 것이지 문에는 쓸 수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언'은 우리글·우리말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② 문헌으로서의 『훈민정음』 :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을 1446년(세종 28) 정인지 등이 세종의 명으로 설명한 한문해설서이다. 책이름을 글자이름인 훈민정음과 똑같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해례(解例)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한편 이 속의 「예의」편만을 국역한 책도 있는데, 이는 『훈민정음 언해본』 또는 『언해본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이 『훈민정음 언해본』은 현재 온라인으로 디지털화되어 해설과 함께 편리하게 볼 수 있다.

18) 책이름을 글자이름인 훈민정음과 똑같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해례(解例)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집필자들은 정인지·신숙주·성삼문·최항·박팽년·강희안·이개·이선로 등 집현전의 8학자이다. 국보 제70호. 간송미술관 소장. 1446년 9월 상한(上澣)에 완성되었다. 현존본은 1940년경 경상북도 안동 어느 고가에서 발견된 것으로, 고 전형필 소장본(현 간송문고 소장)이며, 전권 33장 1책의 목판본이다. 광곽(匡郭)은 가로 16.8cm, 세로 23.3cm이고, 본문(예의) 부분은 4장 7면으로 면마다 7행에 매행 11자, 해례 부분은 26장 51면 3행으로 면마다 8행에 매행 13자, 정인지의 서문은 3장 6면에 한 자씩 낮추어서 매행 12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끝에는 '정통 11년(1446) 9월 상한'이라는 반포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도 발견 당시 완전한 것은 아니고, 처음 2장이 빠져 있던 것을 나중에 붓글씨로 적어 넣었던 것인데, 적을 때 실수하여 세종 어제서문의 끝 자 '이(耳)'가 '의(矣)'로 되는 등 오자가 있다.

上。𠄎為刀而其聲去。𠄎為筆而其
 聲入之類。凡字之左。加一點為去
 聲。二點為上聲。無點為平聲。而文
 之入聲。與去聲相似。諺之入聲。無
 定。或似平聲。如𠄎為柱。𠄎為脅。或
 似上聲。如𠄎為穀。𠄎為繒。或似去
 聲。如𠄎為釘。𠄎為口之類。其加點
 則與平上去同。平聲安而和。春也。

▲ 세종 25(1443년) 3월 1일 병진년 기록

四. 끝내며

신갈천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향린동산 남쪽 350m 고지에서 발원하는 하천으로, 안성천의 제2지류이고,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서 기점은 기흥구 상하동의 상하천과의 합류점이며, 종점은 기흥구와 화성시의 경계인 오산천과의 합류점이라고 알려져 왔다. 상하천과의 합류점에서 시작하여 청명 나들목 근처에서 지곡천과 합류한 뒤 신갈저수지로 흘러들었다가 남쪽 수문을 나와 계속 남류하여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면의 경계에서 국가하천인 오산천과 합류하며 총 길이는 7.83km이고, 유로 연장은 15.35km, 유역 면적은 59.49km². 기점의 하폭은 26m, 종점의 하폭은 75m이다.

이 '신갈(新葛)'이라는 명칭은 '갈천(葛川)을 끼고 조성된 새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갈천이라는 명칭은 이곳의 지형이 '찰[葛]을 닮은 데서 유래하였다고도 하고,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켜 항쟁하였던 김원립(金元立)에서 유래하였다고도 한다. 김원립은 전라도 남원에서 태어나 용인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관직에서 물러난 뒤 이곳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여생을 마쳤는데, 그의 명망을 기려 이 지역의 명칭도 그의 호인 갈천을 따서 '갈천' 또는 '갈곡(葛谷)'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흥구의 신갈동·상갈동·구갈동 등의 지명은 모두 갈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본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종실록》의 기사에 보이는 '용인현 도천(刀川)'은 그곳이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는 현실에서 갈천은 찰이나 혹은 덩굴, 갈포를 뜻하는 한자 葛(찰 갈)이 아닌 도천(刀川)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刀(칼 도)의 훈인 '갈'의 고음이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갈'이라고 기록된 사실로 미루어 '갈천'이라는 명칭의 유래를 추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신갈천이 흐르고 있는 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어정은 기흥구 중동에 속하고 어수물은 동백동에 딸린 마을인 어정은 본래 어정(漁汀)으로 표기했었으나 1995년 일제식 지명을 정비할 때 어정(御井)으로 고쳤다. '어정(漁汀)'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뜻이 되고 '어정(御井)'은 임금의 마시는 우물'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는 같은 땅이름을 어떤 한자표기로 옮기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바로 어정에서 하나의 예를 보게 된다¹⁹⁾.

그래서 이 '어정(御井)'과 인접해 있는 '갈천'이라는 명칭의 유래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울러 《세종실록》의 해당 기록을 토대로 세종대왕 어가행렬 재현 행사로 전국적인(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료라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세종이 용인현에 행차한 1443년 3월은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해라는 점에 대한 학술발표회 개최로 전국적인 문화도시 홍보방안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세종이 대동한 왕비 소헌왕후를 위해 영인 15인으로 하여금 풍악을 올렸다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 가칭 '소헌왕후 음악제' 혹은 '세종 풍악 음악제' 등에 대해 좀 더 연구할 것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
- 훈민정음 해례본
- 두산백과 두피디아
- 위키백과
- 『기재잡기(寄齋雜記)』 (박동량)
-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 (이존중)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이공익)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소설로 만나는 세종실록 속 훈민정음(박재성)
- 세종어제훈민정음총록(박재성)

19) 출처 : 용인시민신문(<https://www.yongin21.co.kr>)

[발표 1]

용인지역문화와 콘텐츠 : 한글문화유산과 용인

홍 순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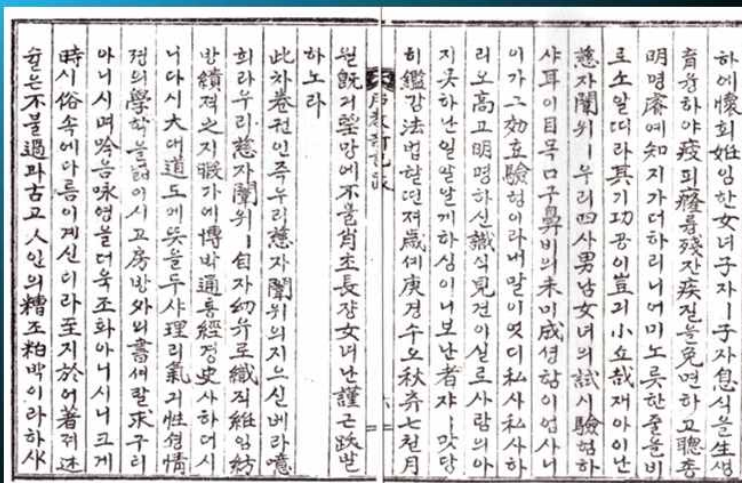
문학박사
강남대학교 한영문화콘텐츠학과 명예교수

한글문화유산과 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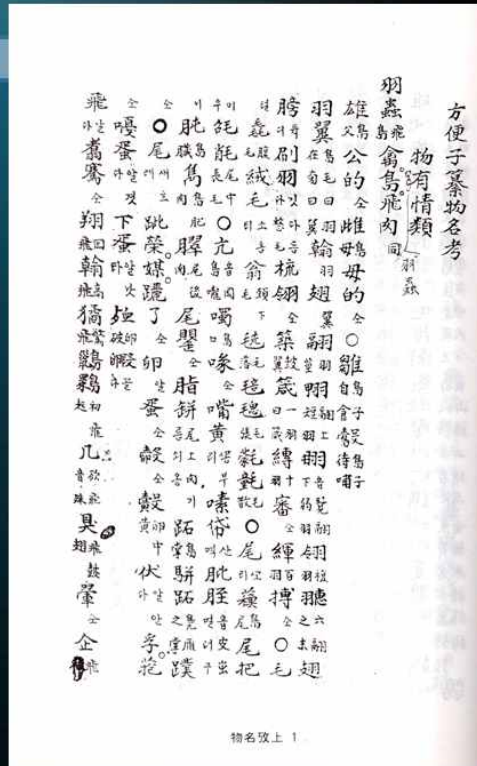
1801년 <태교신기언해>
- 모친 사주당이씨의 <태교신기> 한
글로 번역함

한글문화유산과 용인



<태교신기> 한글 발문
- 사주당이씨 장녀

한글문화유산과 용인



1820년대 유희 <물명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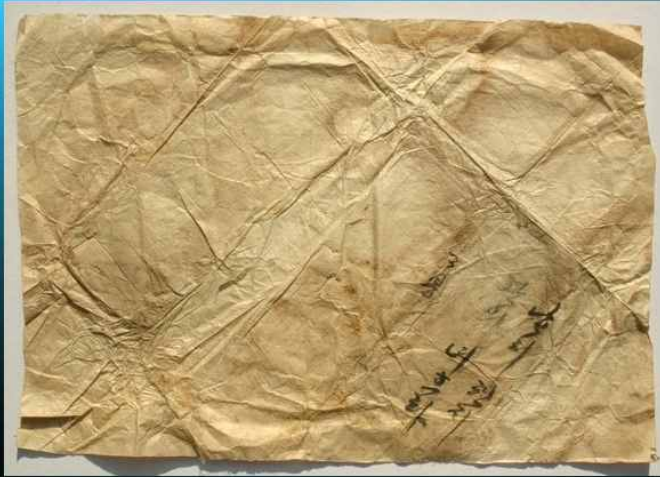
- 박물지, 어휘사전
- 1,660개의 우리말 물명을 한글로 정리

한글문화유산과 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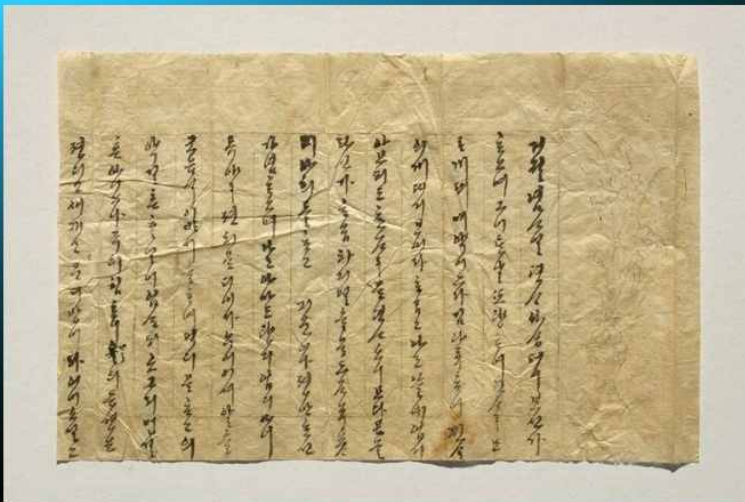
- 유희선생 한글 행장
(유희선생 부인 안동권씨)

한글문화유산과 용인



유시정(1596~1658)의 한글 편지
2005년 12월 7일 묘소 출토 유물
- 유시정의 부인 안동김씨 피봉

한글문화유산과 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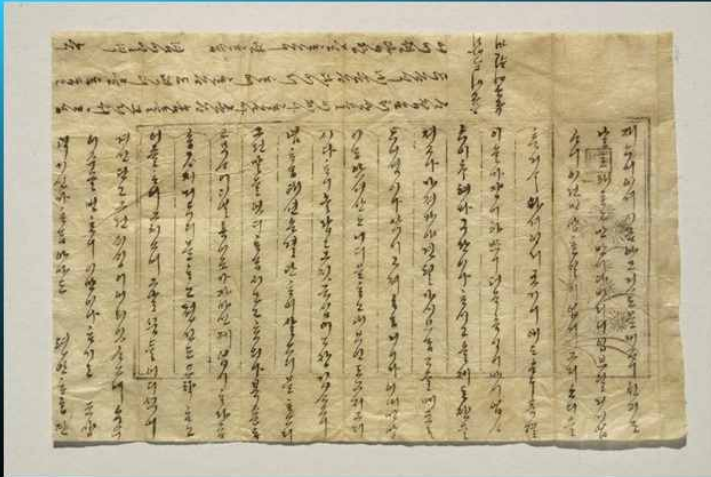


유시정 한글 편지[59]

가로38.1 세로 25.5

38.1×25.5cm

한글문화유산과 용인



유시정 한글 편지[52]
가로 35 세로 22

한글문화유산과 용인



공재주의 한글본 <곡부실기>
- 용인군 읍삼면 지식동 거주, 곡부
공씨
- 1913년 11월 3일 ~ 12월 6일(35
일) 곡부여행기

한글문화유산과 용인



<국부실기> 첫째 장

한글문화유산과 용인



<국부실기> 판지

- 대정14년 4월 30일
 - 용인군 음삼면 384번지 공재주
 (조선총독부허가)

[발표 2]

훈민정음 문화콘텐츠 제작연구

- 영화 '나랏말싸미' 사례를 중심으로 -

강 진 갑

문학박사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

훈민정음 문화콘텐츠 제작 연구 -영화 '나랏말싸미' 사례를 중심으로-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

newsTHEWON 객원논설위원

1. 영화 '나랏말싸미' 연구

영화 '나랏말싸미' 개봉과 흥행 실패



- 2019년 영화 나랏말싸미 개봉
- 영화 내용
 - 세종과 훈민정음 창제 주제
 - 문자와 지식이 권력인 15세기 조선. 새 문자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지식을 나눠 주려는 세종은 사대부의 반발에 부딪힌다. 그러던 중, 한 승려를 만나면서 한글 창제의 숨은 이야기가 시작된다.
- 관객의 반응 : 역사를 왜곡했다며 관객 비판받아 흥행에 실패
- 평점 4.6/ 누적관객 958,775명
- 감독 조철현/주연 송강호 박해일 전미선

관객의 반응

- “왜 이 영화가 그렇게 논란이 되었는지 영화보고 확실히 느꼈음.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기록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는 신미라는 중이 거의 다 만들었다고 보면 됨. 세종대왕은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검사만 함. 한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인 중 한명인 세종대왕을 완전 무능력한 허수아비로 비취버림. 이건 완전 대놓고 역사왜곡한 영화임. 학계에서도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세종대왕 혼자 단독적으로 한글을 창제했다는게 정설이라고 함. 주연은 거의 박해일 혼자라고 봐도 됨. 송강호가 연기한 세종대왕은 그냥 거들 뿐, 떨거지로 나옴.”
- “아무리 영화는 창작물이라고 하지만 정말 엉터리영화다.”
- “배우들도 각본좀 자세히 보고 참여하길 바랍니다. 이건 역사왜곡 수준이 너무 심하네요. 한글은 세종대왕 혼자서 만들었습니다. 집현전이 도와 준것도 아니고 오로지 혼자서 만든거라구요. 근데 이영화는 심하잔습니까..”
- 출처: [나랏말싸미 | 다음영화 \(daum.net\)](https://www.daum.net)

언론의 반응

-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을 모욕한 영화 '나랏말싸미'
- NEWSIS 2019.07.24. / 조선일보 2019.07.24
- '나랏말싸미' 논란 "역사 왜곡" vs "영화일 뿐"
-연합뉴스 2019.07.24.
- 관객을 바보로 여긴 허무맹랑한 영화 '나랏말싸미'
- NEWSIS 2019.07.29 / 조선일보 2019.07.29.
- 평점 테러 당한 '나랏말싸미'
- 중앙일보 2019.07.29.
- 영화 '나랏말싸미'는 허구, 그러나 역사왜곡은 아니다
- 조선일보 2019.07.30.
- '나랏말싸미'는 감독과 관객이 충돌한 영화이다
- 중부일보 2019.08.01.
- 한글 창제 주역이 승려?... '나랏말싸미' 6대 의문 따져보니
- 중앙일보 2019.08.03.
- '나랏말싸미', 역사 왜곡 논란...전문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 동아일보 2019.08.02.

문제 제기 1: 역사왜곡 문제

1. 영화가 역사를 왜곡하였는가?

- 역사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감독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든 픽션
- 역사 소재 예술작품에서 작가와 감독의 상상력 발휘가 없으면 그것은 다큐멘터리이지 예술작품이 아님
- 역사 영화인 '나랏말싸미'가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그려졌다고 해서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음

역사고증: 신미와 훈민정음 창제

- 훈민정음 창제 신미협찬설
 - 승려 신미가 한글 창제에 협찬하였다는 것은 학계에서는 발표된 학설의 하나임
- 한채영(한신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의 회고'(KCI 등재지 '어문논집 27호', 2017)
 - KCI 등재지 수록 논문,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진행한 '훈민정음 연구의 성과와 전망'의 결과물
 - 국어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정리한 논문
 - 이하 페이지는 본 논문의 인용 페이지임

역사고증: 훈민정음 창제자

- 1) 세종의 친제설
 - 근거: "이 달에 임금께서 몸소 언문 스물 여덟 글자를 만들어내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부른다(是月上親制諺文二十八字.....是謂訓民正音). "(《세종실록》 25년 12월 조/ 음력 1443년)
 - 세종 친제설에 대한 의문 제기
 - "세종이 순수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는 명제는 이미 상식처럼 된 듯이 여겨지기도 하지만, 훈민정음을 창제한 주체에 관한 의구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국사만으로도 충분히 바빴을 세종이 실로 엄청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의 창제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친제설에 대한 의문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72쪽)

역사 고증: 훈민정음 창제자

2) 비친제설

- 세종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학자에게 명하여 만들었다는 설/ 학계 일부 주장(110쪽)

3) 친제협찬설

- 세종이 다른 이들의 협력을 얻어서 만들었다는 설(110쪽)

3-1) 집현전 학자 협찬설(110쪽)

- “훈민정음 창제에 있어 세종을 도운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첫째 동궁이요 다음으로 진양대군, 안평대군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는 하면서도 세종과의 공동제작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112쪽)

3-2) 정의공주 협찬설(111쪽)

3-3) 불교계 협찬설(113쪽)

훈민정음 창제: 불교계 협찬설

3-3) 불교협찬설

- “세종은 당대 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승 신미·수미·설준·홍준·효운·지해·해초·사지·학열·학조·김수온 등을 전문적인 실무자로 하여 극비리에 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실험·확정·공표
- 훈민정음 창제는 임금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승려나 불교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면 큰 반발에 부딪힐 것이기에, 그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종이 직접 정음을 창제하였음을 강조했다.
- 신미 외에도 신미의 숙가(俗家) 동생 김수온과 정의공주가 실질적으로 정음 창제에 참여했을 것
- 그러나 훈민정음의 공식적인 창제자가 세종이라는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113쪽)

역사고증: 훈민정음 창제

- 4) 훈민정음 창제자 연구는 남겨진 과제
- “다양한 견해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작업이 우리의 새로운 과제로 남겨진 셈”
 - “제시되었던 기존의 논의들이 각각 그만큼씩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결론을 찾아나서는 것이 우리가 밟아가야 할 다음 여정이 되어야 할 것”(72쪽)
- 5) 훈민정음 창제와 신미 관계
- 훈민정음 창제에서 신미 등의 승려 협찬은 국어학계의 하나의 학설로 제기된 문제임. 따라서 시민 협찬설을 역사 왜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문제제기 2: 감독 상상력 한계

2. 영화는 왜 흥행에 실패하였는가?

- 이 영화의 핵심적인 문제는 감독의 상상력 한계.
- 이 영화는 관객 시선과 감독의 관점이 충돌한 영화



감독의 시선

- 세종과 신미가 함께 만드는 세상
- 위인전의 주인공이 아닌, 고뇌와 번민 속에 좌절과 성취를 함께 겪는 위대함의 뒤편에 숨어 있는 인간의 모습
- 제왕의 권위까지 버리면서 백성을 위해 처절하게 고민했던 세종의 모습을 그리고자 하였다



감독의 의도와 관람객의 시선

대등한 세종과 신미

신미 옆의 쭈그리고 있는 세종



세종대의역사와 한국인의 세종에 대한 평가

- 세종 : 한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주
 - 한글 창제
 - 과학과 학문 발달
 - 우리 영토를 두만강과 압록강까지 확대
 - 대마도 정벌한 뛰어난 군주
- 영화 속의 세종
 - 그같이 당당한 군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 세종과 신하의 관계를 대립을 넘어 서로 무시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영화 갈등 구조의 중심으로 설정
 - 세종시대는 한글 창제를 제외하고 왕과 신하가 협력하여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 국력을 가장 융성했던 시대.

한국인의 세종에 대한 평가

- 한국인의 세종에 대한 평가 :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 영화의 모든 논란은
 - 보편적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군주로서의 세종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
 - 감독이 영화에서 창작한 세종의 인물상 사이의 큰 간극에서 시작
- 관객과 감독의 충돌
 - 이 간극은 영화가 개봉되면서 파열음을 내면서 충돌로 이어졌고,
 - 영화 흥행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감독 의도와 달리 해석되는 이미지

세종의 넉넉함



신미의 당당함



감독 의도와 달리 해석되는 이미지

신미의 등장



신미가 주역, 세종이 조역?



감독 의도와 달리 해석되는 이미지

당당한 신미와 신미에게 다가가는 세종



관객에게 비친 세종의 모습

- 영화사는 영화 속의 초고 명대사로
 - 승려 신미가 세종에게 “그 자리에 앉았으면 왕 노릇 똑바로 하란 말이오” 라고 질책하는 장면을 꼽고, 이를 영화 홍보에 사용
- 관람객은 영화 감독이 세종을 한없이 왜소한 군주로 추락시킨 것으로 받아들였다.

감독의 의도가 관객에게 정반대로 전달된 영화

- 감독의 역사 고증
 -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언어학자와 종교학자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 거쳤다고 하였으나
- 감독의 역사 고증 한계
 - 세종시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영화의 많은 부분에서 당시 시대상과 맞지 않는 장면이 계속 나오게 되었다.
 - 이러한 점들이 관객들의 영화 몰입에 방해
- 감독의 의도가 관객에게 정반대로 전달된 영화
 - 감독의 상상력과 연출의 한계로 초래된 결과

관객의 문제

- 관객의 문제 1 : 예술 창작을 다큐멘터리로 바라본 점
 - 역사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닌 창작품인데
 - 왜곡의 문제로 바라본 점
 - 신미의 창제협찬설은 학계에서도 학술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관객의 문제 2 : 평점 테러
 - 영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일부에서 영화 평점란에 1점을 주는 ‘평점 테러’ 같은 일을 한 점,
 - 이 영화를 보지 말자는 보이콧 움직임을 보인 것
 - 사회가 성숙해지려면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되어야 함

2. 세종과 훈민정음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몇가지 제안

훈민정음 문화콘텐츠 제작 방향

1. 문화콘텐츠 제작 방향
 - 교육관광자원, 지역 축제, 문화공간으로의 활용,
 - 창작자원화: 문학, 공연, 시각예술
 - 영상자원, 문화상품화, 디지털 콘텐츠화
2. 훈민정음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
 - 용인의 세종, 훈민정음이 아니라, 용인이 중심이 타 지역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업 진행 필요
 - 세종, 한글, 훈민정음 관련 기념 사업단체와 연계 필요
 - 훈민정음 콘텐츠 사업은 시민 및 전문가 공감대 확산이 중요함
3. 용인시의 역할
 - 훈민정음과 용인과의 관계 학술 고증 사업

[발표3]

훈민정음과 음양오행

강 구 인

용인시청 지방공무원 30년 근무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훈민정음 교육원장



이달[1443년 음력 12월에 임금이(세종대왕)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으셨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합친 후에야 글자를 이룬다. 무릇 한자(漢字)에 관한 것과 우리말(韓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요약하지만 전한 이 무궁하니, 이를 훈민정음이라 이른다.

⁽³³⁸⁾
조선왕조실록[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42장 A면
 癸亥 1443년[세종 25년] 음 12월 30일 庚戌 /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于文字及本國體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훈민정음訓民正音 : 임금이 지으신 언문(우리글)의 명칭
 조선왕조실록에 시험 과목명 6회, 창제글 명칭 5회, 총 11회.

- 언문**諺文 : 우리글, 우리말
- ① 조선왕조실록 215회 [諺字 포함 1,156회], 승정원 일기 173회
 - ② [중성해] 또한 반설음의 'ㄹ'은 마땅히 우리말에나 쓸 것이요, 한자어 종성에는 쓸 수 없다. 且우舌之ㄹ 當用於諺 而不可用於文 한자에 대한 낮춤 말(卑語)이 절대 아님.

전자篆字 : 서예 전서체 /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 표기 글씨체

언문 발간 책자

- 음버어천기 [1445]
- 석보상절 [1447, 세조지음, 석가 연대기]
- 월인천강지곡 [1447, 세종26지음, 한자음용 우리말 표기대로 표기]
- 사성통고 [1447]
- 동국정운 [1448]
- 홍무정운 역훈 [1455, 단종3]
- 월인석보 [1459, 세조지음, 월인천강지곡 + 석보상절]



세종실록 113 권, 세종 28년[1446] 음력 9월 29일 갑오 [원문 게재]

○ 是月, 訓民正音成. 御製曰 :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予爲此憫然, 新制 二十八字, 欲使人(易)習, 便於日用耳. ㄱ牙音, 如君字初發聲, 並書如卍字初發聲. ㅋ牙音, 如快字初發聲.
 ㅇ牙音, 如業字初發聲. ㆁ舌音, 如斗字初發聲, 並書如單字初發聲. ㄷ舌音, 吞字初發聲. ㄴ舌音, 如那字初發聲. ㅈ唇音, 如皆字初發聲, 並書如步字初發聲. ㅊ唇音, 如漣字初發聲. ㅋ唇音, 如漣字初發聲. ㆁ齒音, 如剛字初發聲, 並書如慈字初發聲. ㆁ齒音, 如侵字初發聲. ㆁ齒音, 如成字初發聲, 並書如邪字初發聲. ㅇ喉音, 如把字初發聲. ㅇ喉音, 如虛字初發聲, 並書如洪字初發聲. ㅇ喉音, 如欲字初發聲. ㄹ半舌音, 如閑字初發聲. ㄹ半齒音, 如穰字初發聲.
 ·如舌字中聲, ㄹ如剛字中聲, ㄴ如侵字中聲, ㄷ如洪字中聲, ㄴ如單字中聲, ㅋ如君字中聲, ㄱ如業字中聲, ㄴ如欲字中聲, ㄴ如穰字中聲, ㄴ如成字中聲, ㄴ如皆字中聲, 終聲復用初聲. ㅇ連書唇音之下, 則爲唇輕音, 初聲合用則並書, 終聲同.
 ·ㄱㄴㅈㅊㅋㆁ附書初聲之下, ㄴㄹㅌㅍ附書於右, 凡字必合而成音, 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念.

禮曹判書鄭麟趾序曰 :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 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 蓋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之字, 以通其用, 是猶柄鑿之鉅鎔也, 豈能達而無礙乎? 要皆各隨所處而安, 不可強之使同也. 吾東方禮樂文物, 作擬華夏, 但方言俚語, 不與之同, 學者患其旨趣之難曉, 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 昔新羅薛聰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然皆假字而用, 或滲或窒, 非但鄙陋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 二萬之妙, 莫不該括.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故智者不崇朝而會, 愚者可決旬而學.
 以是解書, 可以知其義; 以是聽訟, 可以得其情. 字韻則清濁之能下, 樂歌則律呂之克諧, 無所用而不備無所往而不達, 雖風聲鶴唳雞鳴狗吠, 皆可得而書矣. 遂命詳加解釋, 以喻諸人. 於是, 臣與集賢殿應教崔恒, 副校理朴彭年·申叔舟, 修撰成三問, 敦寧注簿姜希顔, 行集賢殿副修撰李埴·李善老等謹作諸解及例, 以敘其梗概, 庶使觀者不師而自悟. 若其淵源精義之妙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 恭惟我殿下天縱之聖, 制度施爲, 超越百王,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 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而非人爲之私也? 夫東方有國, 不爲不久, 而開物成務之大智, 蓋有待於今日也歟!

[원]어제 서문 및 예의 [아래]정인지서문 / 예시은 본문 참조, 해례 부분이 없는 아시요.

훈민정음에 감춰진 9궁九宮과 음양오행



적색 : 양
황색 : 토
청색 : 음



왕은 북쪽에서 남쪽을 앞으로 바라보고 자리하는 것이 구궁도와 같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아전화라 정민

왕의 남면南面



훈민정음에 감춰진 9궁九宮과 음양오행



훈민정음 예의 例義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 ㅎ은 목구멍소리니 들자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ㅎ은 목구멍소리니 형자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흥자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ㅇ은 목구멍소리니 옥자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ㄱ. 喉音. 如把字初發聲 이후음여음자초발성
- ㅋ. 喉音. 如虛字初發聲 허우음여허자초발성 並書. 如洪字初發聲 병서어홍자초발성
- ㅇ. 喉音. 如欲字初發聲 이후음여욕자초발성

작명(命名) 발음(發音) 오행(五行)
 훈민정음 제자해에 목소리 ㅇ은 목구멍을 본뒀다. 목구멍은 깊숙하고 젖어 있으니 오행수다. 알소리는 비어 있는 듯 통하는 바 이는 물(水)이 투명하게 맑고 잘 흐르는 것과 같다. 계절은 겨울이고 음률은 궤음(계)이다.

- ① 사성통해 권두 (은화36지모도), (음운문 31자모도) ㅁ[ㅁㅁㅁ] ㅊ[ㅊㅊ] (한글의 발명 정량 2015 김성사 P317 B5-3, P319 B5-4 참조)
- ② 훈민정음해례/한글 ㅊ[ㅊㅊㅊ] ㅁ[ㅁㅁㅁ] ㅊ[ㅊㅊ] ㅁ[ㅁㅁㅁ]



하늘방사탑 훈민정음 17

훈민정음 예의 例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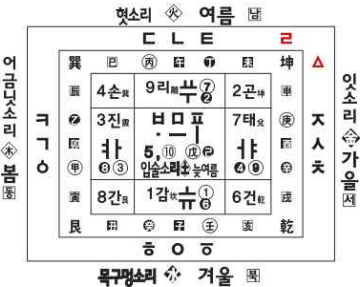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 ㄹ은 반헛소리니 령자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ㄹ은 반잇소리니 상자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ㄹ. 半舌音. 如閑字初發聲 리반설음여려자초발성
- ㄹ. 半齒音. 如讓字初發聲 이반치음여량자초발성

반음[ㄹ:ㅁ]과 심복[ㅁ:ㅁ] (반자상 생각)
 - 오형 화:금:수 사이는 화:금:수:수 관계며,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가을의 싸늘한 기운으로 바로 넘어가면 충돌하기 때문에 늦어(음:토:니)의 기운을 실려 준다. 심복이란 절기 아닌 절기를 말한다. 방위로도 서남방은 같하지 않게 본다.
 - 훈민정음에서도 초성을 12개월 12자로 하고, 늦어(음:리)과 초가을(ㅁ)에 반음 2자를 더하면서 중앙 토:의 3자를 더해 오형의 충돌도 중화하고 하늘의 28수중에 맞는 숫자도 고려 한 듯한 느낌을 끝내내 바꿀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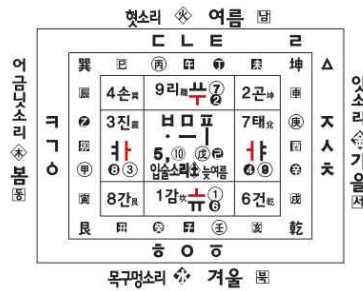




- ㄴ는 흥자 가운데잇소리와 같다.
- ㄷ는 땀자 가운데잇소리와 같다.
- ㄱ는 군자 가운데잇소리와 같다.
- ㄹ는 엽자 가운데잇소리와 같다.

- ㄴ. 如洪字中聲 오어흥자중성
- ㄷ. 如腫字中聲 아어땀자중성
- ㄱ. 如君字中聲 우어군자중성
- ㄹ. 如葉字中聲 어어엽자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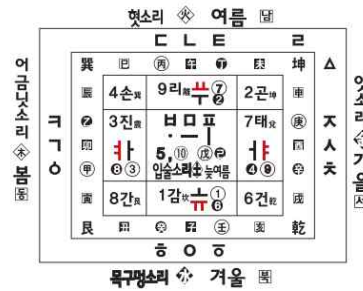
삼재 三才		하도수 河圖數			
천진 天眞	지지 地止	인민 人眞		생수 生數	
양 陽	음 陰	양 陽		음 陰	
5	10	1	3	2	4
■	□	⊥	⊥	⊥	⊥
土도		水수	木목	火화	金금



- ㄹ는 옥자 가운데잇소리와 같다.
- ㅈ는 상자 가운데잇소리와 같다.
- ㅊ는 숲자 가운데잇소리와 같다.
- ㅋ는 별자 가운데잇소리와 같다.

- ㄹ. 如欲字中聲 오어옥자중성
- ㅈ. 如權字中聲 아어상자중성
- ㅊ. 如戌字中聲 유어숲자중성
- ㅋ. 如穹字中聲 어어별자중성

하도수 河圖數			
성수 成數			
양 陽		음 陰	
7	9	6	8
⊥	⊥	⊥	⊥
火	金	水	木



[발표 4]

문화도시 용인의 정체성, '길'에서 찾다

김 장 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1. 문화도시와 도시 정체성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는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 본연의 특색있는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하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꾸려갈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 평가와 컨설팅, 그리고 심의를 거쳐 예비도시로 지정한다. 이후 1년간 예비사업 수행 후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 법정 문화도시로 최대 200억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용인시도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 신청을 했지만, 최종 탈락하고 말았다.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가졌던 여타 지자체들에 비해 단 몇 개월을 앞두고 조례를 제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도시 추진 과정에서 지역을 잘 아는 문화전문가는 거의 배제된 채 외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는 것과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도외시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었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해 지역 고유의 문화 발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용인시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문화도시의 실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만으로도 비약적인 발전이라 생각한다. 왜냐면 본인이 근 20년을 넘게 문화계에 종사하면서 주문 외우듯 ‘문화도시’를 외쳤지만, 지금까지 문화도시를 표방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과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문화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각각의 제안된 실천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도 갖춰야 한다. 소수의 전문가들이 정책 영역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시민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처럼 정책사업으로서 문화도시를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Top Down 방식의 일방적 추진은 절대 안 된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 중심의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 다소 추상적일지라도 어떠한 문화도시를 함께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을 공유해야 한다. 시

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도시의 미래상을 꿈꾸며 장기적 도시발전 전략으로서의 문화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를 구성하고 살아온 시민들의 관점에서 역사적 맥락과 인문환경의 관계성을 기저에 두고 함께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용인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의 자기다움이며, 이러한 지역 정체성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이다.

본인은 용인의 도시 정체성을 ‘길’에서 찾고자 한다. 용인은 고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내륙 산간지역으로 전략상 요충지였으며, 삼남대로와 영남대로가 분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길을 따라 사람들이 오가면서 자원과 정보를 교환하고 문화를 전파하면서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졌듯이 용인은 시대별 흥망의 역사를 온몸으로 관통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융합 및 재창조하는 등 복합 기능을 해 온 곳이다. 이것이 많은 지역 연구자들로부터 용인문화의 특징을 ‘다양성’으로 정의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길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물자의 이동을 연결해 주는 통로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길이 없이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현대에 이르러 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처럼 로마제국의 번영도 길에서 부터 시작되었고, 동서양에 걸친 세계 제국을 이루었던 몽골의 거대한 영토도 역참으로 연결된 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역사 속 비단길이 지금까지 유명한 것도 비단길을 통해 사람들이 오가고 물자가 거래되는 교역로였기 때문이고 아울러 동양과 서양 세계를 이어주는 교통로였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러 중국에서 새로운 실크로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도 교역과 교류를 넘어 중국의 패권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본인은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용인의 정체성으로 ‘길’을 상정하고, 그와 관련된 역사 및 문화적 맥락을 각종 사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 고대의 길

일반적으로 역사 기록이 남아 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 하고, 상대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그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 한다. 선사시대에 해당하는 구석기 및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도 용인에는 분명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유적이거나 유물을 통해 그 양상을 유

추할 수 있을 뿐이다.

용인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동기 시대이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나 주거지 분포지역을 살펴보면 하천 주변과 낮은 구릉 지대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인들은 하천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하천 주변의 낮은 구릉 지대에 거주하면서 농경 생활과 함께 어로 생활을 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용인은 5개의 하천이 분포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모두 용인이 발원지라는 사실이다. 용인에서 청동기 유적이나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이러한 하천을 끼고 청동기 시대의 유력한 집단이 모여들어 세력을 떨쳤기 때문이다. 즉 용인의 청동기 시대를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은 5개 하천이 흐르면서 형성된 물길이다.

선사시대를 지나 문헌으로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역사시대에 이르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용인지역에 관한 문헌 자료는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다만 이 지역이 삼한 시대를 거쳐 백제의 세력권 안에 있었다는 것은 백제 시기에 이 지역을 멸오(滅烏)라고 불렀다는 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용인지역에 고구려가 ‘구성현’을 설치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지역에서 고구려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보정동 고분군에서 고구려 고분으로 추정되는 2기가 확인되어 주목되는 정도다.

6세기 중엽,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면서 용인도 신라의 세력권에 편입되었는데, 6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신라의 세력 확장을 잘 보여주는 유적은 할미산성과 보정동 고분군이다. 할미산성의 경우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한 직후인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반에 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정동 고분군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시기에 이르는 한강 유역 최대의 고분군으로 할미산성과 축성과 같은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로 조성 시기를 추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삼국시대의 용인은 초기 백제의 땅이었다가 4세기 후반 고구려가 차지하게 되고, 6세기 중반에는 신라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삼국시대에 한강 유역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길목에 해당하는 용인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사실이다. 특히 할미산성은 당시의 시대상을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할미산성은 서울 방면에서 탄천 수계나 경안천 수계를 따라 남하하는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한 곳이자 남쪽 안성과 평택 방향에서 진위천 수계나 오산천 수계를 통하

여 서울 방면으로 진출하는 백제를 방어하기에 가장 적절한 산성이다. 뿐만 아니라 신라가 한강 유역을 경영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당항진(화성으로 추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미산성 일대를 거쳐야 하므로 할미산성은 신라의 당항진 진출의 통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고려 시대의 길

고려 시대에 용인의 도로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조선 시대의 도로망이 이전 시대인 고려 시대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것임을 생각하면, 고려 시대의 도로망 역시 이전 시대인 통일신라 시대의 제도를 근간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용인은 예로부터 삼남(三南)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관문이었다. 즉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로 내려가는 길목이었던 것이니 요즘으로 치면 1번 국도가 지나는 요충지라는 뜻이다.

고려사 역원조를 보면 용인을 지나는 역로(驛路) 상의 역원명칭으로 용흥역(龍興驛)이나 금령역(金嶺驛), 좌찬역(佐贊驛), 보수원(寶樹院)이나 금령원(金嶺院) 등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는 조선 시대 역로 상의 역원명칭과 동일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고려 시대 용인의 길, 즉 도로망은 지금의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내려와 신갈에서 용인 김량을 지나 양지, 백암을 경유해서 내려가는 조선 시대 영남대도가 간선(幹線)이고, 신갈에서 오산, 용인에서 안성이나 광주, 양지에서 이천 방향으로 연결되는 길이 그다음으로 중요한 지선(支線)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다음의 길은 당연히 마을이나 관청, 봉수대나 사찰, 등등 여러 마을과 민가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있었을 것이다.

용인의 명칭이 용구와 처인을 합친 이름이라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용인현의 치소(治所)는 현재의 기흥구 마북동이었고, 처인현의 치소는 남사읍 아곡리 아곡마을이었다. 고을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있는 소재지로 연결되는 길 또한 잘 정비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두 고을이 하나로 통합된 조선 시대 초에 이르러 용인현 중심의 도로망이 새로 확립되고 처인현의 도로망은 일부 쇠퇴나 조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고려 시대 용인의 길을 생각할 때 역사의 기록을 토대로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이동읍 서리에 있는 고려백자요지와 관련

된 도자기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사면 아곡리에 있는 처인성으로 연결되는 군사 도로이다.

서리에 남아 있는 도자기 가마터의 크기나 쌓여있는 파편의 양을 보면 수백 년에 걸쳐 도자기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도자 사학자는 우리나라 고려 시대 도자기 역사는 전라남도 강진과 경기도 용인에 80% 이상 집중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이다. 고려백자는 용인, 고려청자는 강진, 이 단어의 조합은 영원히 바뀌지 않은 등식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더구나 도자기는 요즘으로 치면 반도체와 비견할 수 있는 초 하이테크산업이다. 남아 있는 도자기 파편 가운데 상당수가 국가나 지방관청에서 제사에 사용된 제기(祭器)임을 감안할 때 도자기 완제품의 이송로나 원료의 조달에 필요한, 이동을 서리로 연결되는 여러 방향으로 길이 통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용인의 길이 몽골군의 침략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현재의 처인성이 시골 변두리에 있지만 고려 시대에도 충청, 전라, 경상도 방면으로 내려가던 몽골군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것이다. 이는 처인성이 작기는 해도 군사적인 요충이며 처인성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연결로 또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용인을 관통하는 봉수로 역시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은 아니지만, 현대에 이르러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통신로였다. 요즘으로 치면 IT산업의 중추 신경망이 지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개산과 건지산으로 연결되는 봉수로는 부산포를 기점으로 개경에 닿는 가장 중요한 봉수로이다. 이후 조선 시대에 왜적의 북상로와 봉수로와 영남대로가 겹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고려 시대의 기록은 고려사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기록으로 용인의 길을 재구성하기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건이나 통일신라에서 조선 시대를 이어주는 중간자로 고려 시대를 볼 때 어느 정도 고려 시대의 길을 유추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4. 조선 시대의 길

고려 시대에는 수도가 개경(開京)이었지만 조선이 개국하면서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게 된다. 때문에 용인은 한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되면서 오늘날 수도권에 해당하는 기전(畿甸)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 기전 지역은 국왕의 행차가 빈번한 곳이었다. 국왕이 주도적으로 왕릉을 참배하고 제향을 모심으로써 백성들에게 효(孝)와 예(禮)의 모범을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용인의 경우, 여주 영릉 제향

을 위해 국왕이 지났다는 기록뿐만 아니라 경상도나 삼남 지방 행차 시 용인을 거쳐 갔다는 문헌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 발표 직전 소헌왕후와 왕자들을 데리고 충청도로 가는 길에 용인현 도천에 머무르며 풍악을 울리게 했다는 기록은 매우 주목할만하다.

그런가 하면 용인은 조선 사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거지이기도 했다. 사대부들은 낙향 후에도 임금을 정점으로 한 도성의 영향권에 속하고 중앙과의 인연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인은 역사 인물이 즐비하고 토성(土姓)인 용인이씨 외에도 영일정씨, 연안이씨, 한양조씨, 한산이씨, 우봉이씨, 경주김씨, 의령남씨 등이 명문 재지사족(在地土族)으로 뿌리내린 것은 이 같은 용인의 지리적 위치와 무관하지 않다.

또 고려 시대 도로망을 기반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9개의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이것을 9대로라고 한다. 용인은 9대로 중 영남대로와 삼남대로(충청우도·전라좌우도로 통하는 대로)가 분기하는 갈림길에 위치하게 된다. 특히 영남대로는 한양에서 동래 부산포를 연결하는 열추 1천 리에 육박하는 380km 구간이다. 영남 유생들에겐 과거길이고 보부상에겐 장삿길이었다.

영남대로의 용인 구간을 살펴보면, 한양에서 출발하여 한강나루를 건너 첫 번째 만나는 역이 양재역이고, 두 번째가 판교의 낙생역이었다. 이곳을 지나면 용인 땅이 시작되는데, 풍덕천, 죽전을 지나 지금의 신갈에 위치해 있던 구흥역에 이르게 된다.

구흥역은 영남길과 삼남길이 갈라지는 곳이었다. 즉 한양에서 내려와 구흥역에서 하룻밤을 묵은 사람들이 경상도 방향으로 가는 사람과 충청도·전라도로 가는 사람이 서로 갈라진다고 해서 ‘갈래’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다. 갈래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마을이 생기게 되고 지명도 신갈래와 구갈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신갈과 구갈의 유래이다. 이러한 갈래 기능은 조선 후기 정조가 수원 행궁을 위해 남태령길을 개척하기 이전까지는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구흥역에서 용인시청 쪽으로 가면 금령역이 나온다. 금령역이 있던 자리는 오늘날의 명지대역 정도 되는데, 금령역은 김량장동이 유래된 지명이다. 즉 금령이라고 부르던 것이 나중에 김량이 되었고, 김량에 장이 서게 되면서 김량장이 된 것이다. 금령역에서 양지를 지나 원삼면에 이르게 되면 좌찬역이 있었는데, 주변에 3.21 독립운동이 일어난 좌찬고개가 유명하다.

또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전쟁 통에는 군사도로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1592년 일어난 임진왜란 때에는 일본군이 영남길을 따라 한양으로 진격해 올

라왔다.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자 국왕은 평양으로 몽진을 떠나고, 한양을 되찾기 위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모인 5만 명의 삼도 근왕병이 수지구 풍덕천 일대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것이 <용인전투>이다.

그런가 하면 1636년 청 태종이 일으킨 병자호란 때에는 용인에서 두 번의 전투가 벌어졌다. 수지 동천동에서 벌어진 험천전투와 광교산 자락에서 벌어진 광교산 전투가 그것이다. 수지 동천동 일대에서 벌어진 험천전투에서는 안타깝게 패했지만 광교산 전투에서는 청 태종의 사위인 양고리(楊古利)를 죽이고 수많은 적병들을 사살하는 대승을 거뒀다.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길 중 하나가 봉수다. 다만 그 기능은 군사적 목적이다. 봉수(烽燧)란 큰 난리가 있을 때, 신호로 올리는 불을 이르던 말이다. 나라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이나 요새에 알리는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위급할 때는 피난을 가고 적 침입에 대처하도록 하는 군사적 목적이다. 요즘 표현으론 ‘군사 무선 네트워크’에 해당한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로선 가장 효율적인 통신수단이었을 법하다. 경기지역에는 54개소의 봉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용인에는 건지산 봉수대와 석성산 봉수대 2개소가 있다.

건지산 봉수는 남동쪽 안성과 음성 경계인 죽산 망이산 신호를 받아 서북쪽 석성산 봉수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 또 석성산 봉수는 경기지역 54개소 봉수 중 산성 내에 소재하는 봉수로, 용인 건지산 봉수 및 수원화성 팔달산 봉돈의 신호를 받아 성남 천림산 봉수를 통해 한양 목멱산(남산)으로 신호를 연결해 주는 거점 역할을 담당했다.

5. 근현대의 길

근대 시기를 특징 짓는 가장 큰 변화는 도로교통의 발달이다. 길이 넓어지고 새로운 도로가 뚫리면서 교통이 발달하게 되고, 그와 함께 사회적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도로교통의 발달은 일제 식민지 정책 아래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 개발과 대륙 침략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근대 시기 용인에 처음 개설된 도로가 신작로(新作路)이다. 용인 최초의 신작로는 현재 42번 국도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수원에서 출발하여 신갈-김량장-양지를 거쳐 이천과 여주까지 연결된 노선이다. 1908년 부설된 이 신작로는 원래 용인군청이 소재한 구성 마북리와 언남리를 경유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유림들이 반대하여 신갈을

지나게 되었다. 덕분에 신갈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크게 발전한 반면, 구성 지역은 점점 쇠락해지다가 군청소재지마저 수여면 김량장리에 넘겨주고 말았다.

그러다 1931년, 이 신작로 노선을 따라 부설된 것이 수여선 철도이다. 수여선은 경부선 수원역을 기점으로 용인을 지나 이천·여주에 이르는 연장 73.4km, 궤간 76.2cm의 증기 및 가솔린 병용 철도였다. 총 운행 시간은 2시간 23분이며, 1939년 당시 하루 4차례 왕복 운행되었다.

수여선 철도 역시 1931년 12월 1일 식민지 수탈 정책의 일환으로 부설되었다. 용인, 이천, 여주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경기미와 풍부한 임산물을 운반해 가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종점을 여주로 잡은 것은 남한강 수로 운송과의 연관성 때문이었다. 여주 하항에서 강원도 원주군 부론면 홍호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구간에 하루 4회 왕복으로 운행하는 기선을 통해 영서지방의 임산물과 교역품을 수여선에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다. 수여선 철도는 1937년에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54km의 수인선과 연결되어 수탈한 화물을 인천항을 통해 손쉽게 일본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되었다.

용인 관내를 통과하는 철도의 길이는 26km로서 6개의 역을 통과하였다. 이 구간에 땅을 가지고 있던 당시 용인사람들은 철도 부지를 강제 수용당했음은 물론 철도부설 공사에 강제 동원되었다. 당시 부역에 시달리던 농민 4천여 명이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철도가 완성되자 지역의 농산물 수탈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강제로 징용을 당하는데 이 철도가 이용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철도가 국유화되었다. 6·25전쟁 당시 인민군이 이 열차를 이용하였고, 9·28수복 후에는 영국군·터키군들이 수여선을 타고 중부 전선으로 들어갔다. 이후에는 수원과 용인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열차로 애용되었으며, 지역의 농산물을 출하하는 통로이기도 하였고, 장날 장꾼들이 이용하는 유용한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 산업에 밀려 심한 적자 운영이 야기되었다. 1970년 한해 적자만도 1억 7천 9백만 원에 이르자 1972년 3월 31일자로 폐선되었다.

1970년에는 용인 서부지역을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되어 우리나라 양대 경제권역인 한강 유역과 낙동강 유역을 일일생활권으로 묶고 항만과 주요 도시를 연결하게 되었으며, 1971년(신갈-새말)과 1975년(새말-강릉)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준공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라진 수여선 철도의 일부 구간을 경유하는 신개념의 운송수단으로 부설된 것이 경전철이다. 경전철은 기존의 지하철이나 전철보다 가벼

운 전기철도라는 뜻으로, 무인자동운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인건비가 저렴하고, 특히 고무바퀴로 달리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없어 승차감이 좋고 저공해 친환경 등의 장점이 있다.

용인경전철은 다른 이름으로 에버라인(Ever line)이라 하며, 기흥역에서 출발하여 동백역, 삼가역, 용인시청역, 김량장역 등을 경유하여 전대·에버랜드역까지 15개 역을 잇는 총 18.404km 구간의 노선이다.

용인경전철은 만성적인 교통문제 해결의 최적 수단으로 90년대 후반부터 검토되다가 2005년에 착공하여 1조 32억 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완공하였다. 이듬해인 2011년 4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가 2013년 4월 26일에 개통되었다.

용인경전철은 2014년 9월부터 수도권 전철의 운임 체계로 편입되어 환승 할인이 가능해졌으며, 하루 이용객이 2018년부터는 3만 명을 넘어섰다.

그런가 하면 용인시는 2022년 개통되는 제2경부고속도로와 연계된 SK하이닉스 클러스터를 유치하여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첨단 반도체 밸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흥 및 수지 권역에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2,757,186㎡(83만 평) 규모의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 용인의 길, 콘텐츠화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용인은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 길목 역할을 해왔다.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북상 진출로 및 한강 유역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이용되었으며, 고려 시대 이후에는 이를 연결한 역로가 만들어지면서 고려백자가 성행했고, 처인성 전투의 값진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수도가 한양으로 옮겨오면서 용인은 수도에 인접한 기전 지역에 해당되었으며, ‘사거용인’이라 불릴 정도로 정몽주나 채제공을 비롯한 수많은 위인들의 묘소가 입지하게 되었다. 특히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가 되면서 각종 정보와 문물이 교류되었는가 하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전란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는 박해를 피해 들어온 천주교 신자들이 숨어 살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용인에서 태어나기도 했다. 근대에 들어와 항일 의병활동이나 3.1만세운동이 격렬하게 나타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용인의 인구가 늘어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모두 길이 연결되고 관통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길’은 용인의 역사적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용인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화 요소인 것이다.

그렇다면 용인의 길을 문화 콘텐츠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용인의 길과 관련된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 발표 직전 소현왕후와 왕자들을 데리고 충주로 가는 길에 용인현 도천에 머무르며 풍악을 울리게 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을 상정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용인은 조선 시대의 대동맥이라 했던 영남대로와 충청, 전라 지방으로 이어지는 삼남로가 분기하던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많은 국왕이 지방 행차 시 머물거나 거쳐 지나간 곳이다. 그렇지만 세종실록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조선 시대의 수많은 관료나 선비들이 용인을 소재로 하는 한글 시와 글을 남겼고, 특히 훈민정음을 최초로 연구한 조선 시대 학자인 서파(西陂) 유희(柳僖, 1773-1837) 선생이 용인 출신이며, 그 연구 결과물인 <언문지(諺文志)>가 전해오고 있는 만큼 용인은 훈민정음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용인현 ‘도천’이라는 지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도천이 오늘날 어디인지 남아 있는 사료가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적어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충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면 영남대로가 지나가는 곳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용인이라는 지역에 한정하게 되면 당시 용인현에 해당하는 곳으로 압축된다. 즉 영남대로가 지나가는 곳이지만 양지나 원삼, 백암은 용인 땅이 아니었으므로 제외된다. 또한 ‘도천’이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그곳은 하천이 흐르는 곳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탄천이 흐르는 오늘날의 죽전이나 구성, 또는 신갈천이 흐르는 어정이나 구갈/신갈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어정’이라는 지명의 어원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임금이 머문 곳(御停)’, 또는 ‘임금이 물을 마신 우물이 있던 곳(御井)’으로 유추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나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본인 추정으로는 임금이 머물렀다는 ‘어정(御停)’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왕의 지방 행차 시 대부분의 경우는 용인을 지나치거나 하룻밤을 묵는 정도였을 것이므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만한 일은 흔치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정(御停)’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될 정도면 적어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일은 무엇일까?

역대 국왕들의 행차와 관련하여 용인에서 주목할만한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알려진 것이 없다. 오직 세종대왕이 소현왕후와 왕자들을 데리고 충청도 행차 시 도천에서 풍악을 울렸다는 기록이 유일하다. 이것이 ‘어

정(御停)’이라는 지명의 생성 유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도천’은 어떻게 유래된 지명이며, 오늘날 어디일까? 아마도 도천은 ‘갈래’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흥지역이 오래전부터 삼남길과 영남길이 갈라지는 분기점이었으며, 이 때문에 ‘갈래’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갈래 지역을 흐르는 하천을 ‘갈내’, 또는 ‘갈천’이라 부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세종대왕을 비롯한 왕실 인사와 고을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풍악을 울리는 큰 잔치가 벌어졌으므로 이를 기록하는 사관이 ‘갈내’, 또는 ‘갈천’을 한자로 옮기려다 보니 ‘도천(刀川)’이 된 것이다. 즉 ‘갈’을 ‘칼’의 변음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칼을 닦았다고 ‘칼치’라 부르던 생선이 ‘갈치’가 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했다는 뜻이다.

이제 도천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자. ‘갈천’이 흐르는 곳으로 오늘날의 어정과 구갈, 신갈 등을 모두 상정할 수 있겠지만 이미 ‘어정(御停)’이라는 지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도천은 곧 어정이라는 얘기다.

조선 시대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이 용인 땅에 머물면서 왕후와 왕자, 여러 대신을 거느리고 고을 백성들과 함께 풍악을 울리며 국민안락을 기원하는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 그리하여 ‘어정(御停)’이라는 지명이 탄생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지명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훈민정음이 우리 민족 정체성의 표상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만큼 우리 용인의 한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유산과 인물을 연계시켜 역사문화 콘텐츠로 개발한다면 대단히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원로 음악평론가인 탁계석 선생이 설파했듯이 역사 DNA를 추출해 상상력을 불어 넣고 이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문화콘텐츠의 몫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예술의 힘이고,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즐기고 소통한다. 그렇다. 없는 것도 만들어 내고 스토리를 만드는 콘텐츠 세상이다. 세종대왕의 하룻밤 음악축제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는 역사 복원(復原) 사업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김장환, '용인의 역사와 문화유산', 〈용인학〉, 용인시정연구원, 2022.
- 김장환, '용인 문화도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용인문화〉 2021년 여름호, 용인문화원.
-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용인시사」. 용인시, 2006.
- 정양화 외, 〈용인미래유물전〉, 용인문화원, 2019.
- 탁계석, 〈문화저널21〉, 2021년 6월 29일자(<http://www.mhj21.com>)
- 홍순석, 『용인학』, 채륜, 2010.

[특별수록]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 원고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2021년 6월 17일 제 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문화도시관련 질문을 하면서 우리 용인시는 지난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용인시문화도시조성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고 칭찬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가 용인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아이템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용인시문화도시조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언급한 역사적 사실이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는 세종실록 1443년 12월 30일보다 9개월 전인 1443년 3월 1일 당시 용인현이었던 이곳 용인시에 머무르시며 풍악을 울렸다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세종실록 99권』〈세종 25(1443)년 음력 3월 1일〉

‘임금(세종대왕)이 왕세자(후에 문종)가 따르고 대군 및 여러 군과 의정부, 육조, 대간의 각 한 사람씩에게 어가를 뒤따르게 하고, 왕비와 더불어 충청도 온양 온천으로 거동하시던 날, 용인현 도천(지금의 갈천)의 냇가에 머무르셨는데, 궁정의 음악을 연주하는 악공 15인으로 하여금 저녁때부터 밤 10시에 이르도록 풍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때 임금의 나들이 길의 근처 고을 수령들은 모두 마중나가 고을 경계에서 배알하였으며, 구경하는 백성들이 거리에 넘치었다’

는 내용인데, 이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발견하고 해석해 준 사람은 우리 용인시에 중앙회 사무실을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박재성 이사장입니다.

박재성 이사장은 교육학 박사로서 문화재 감정위원 등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인 훈민정음을 기념하는 탐이 국내외에서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등 각계각층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범국민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를 2020년 11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발족하고 상임조직위원장에 추대되어 훈민정음탑 건립을 위한 실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충북 청주시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반포 직전에 청주시 초수리에 행차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훈민정음탑 건립을 위한 4만3천여 평의 부지를 훈민정음기념사업회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며, 세종대왕릉이 있는 경기도 여주시에서도 훈민정음탑건립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주시 이항진 시장이 박재성 이사장과 본 의원 등을 초청하여 훈민정음탑 건립 부지로 일곱 곳의 사유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방한 한 후에도 두 차례 더 초청하여 깊이 있는 의논을 갖는 등 여주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다는 경북 안동시에서도 시장과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훈민정음탑 안동 유치에 발벗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용인시의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세종실록을 근거로 용인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과 관련한 사료 발굴 및 보급

둘째, 세종실록에 근거하여 갈천으로 알고 있는 지명이 도천인데 칼의 고어 ‘갈’이 갈천으로 변화되었다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용인시 지명의 유래 바로잡기로 시민의식 고취

셋째, 세종이 용인현에 행차한 때가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해라는 점에 대한 학술발

표회 개최로 전국적인 문화도시 홍보방안

넷째, 세종이 대동한 왕비 소헌왕후를 위해 연주하게 한 풍악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 가칭 ‘소헌왕후 음악제’ 혹은 ‘세종 풍악 음악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국적인 음악제로 추진하는 방안

다섯째, 세종 어가 행렬 재현 행사를 통한 범 용인시민과 국민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전국적인 용인시 축제 추진하는 방안

이상으로 본 의원은 시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 공개적으로 5분 발언을 통해서 세종 문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조발표]

세종대왕과 용인 도천

박재성

교육학박사/명예효학박사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위원

사단법인 한중문자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문자교육회 이사장

중국산둥대학교 객원교수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훈민정음탑 건립조직위원회 상임조직위원장

훈민정음대학원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상임추진위원장

〈저서〉

소설로 만나는 세종실록 속 훈민정음

세종어제훈민정음 총록

훈민정음해설사 자격시험 예상문제집

훈민정음 해례본 경필쓰기

훈민정음 언해본 경필쓰기

우리말로 찾는 한자사전

효행과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보감 등

[발표 1]

용인지역문화와 콘텐츠 : 한글문화유산과 용인

홍 순 석

문학박사

용인 운학동 출생

단국대, 성균관대 한문학전공

전) 강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 강남대학교 인문대학장

전)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장

현) 강남대학교 한영문화콘텐츠학과 명예교수

용인, 포천, 이천, 안성 등 경기지역의 향토문화 연구

〈저서〉

성현문학연구

양사언문학연구

박은시문학연구

김세필의 생애와 시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우리 전통문화의 만남 등

[발표 2]

훈민정음 문화콘텐츠 제작연구

- 영화 '나랏말싸미' 사례를 중심으로 -

강진갑

문학박사

인문콘텐츠학회장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장

청와대 문화체육정책 자문위원

경기도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경기학회장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

한국외대 교수

경기대 교수

〈저서〉

경기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한국 문화유산과 가상현실

향교·서원과 용인 사람들

논문) 경기도 600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 과제

논문) 경기 옛길 조성에 관한 연구 등

[발표3]

훈민정음과 음양오행

강 구 인

진주강씨 박사공파 28세손
충북대 건축공학과 졸
용인시청 지방공무원 30년 근무
제8회 전국 시조·가사 창작 공모전 장원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운영위원
훈민정음 교육원장

〈저서〉

하늘·땅·사람 훈민정음
한글세대를 위한 훈민정음 해례

[발표 4]

문화도시 용인의 정체성, ‘길’에서 찾다

김 장 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